

역사의 핏줄을 만드는 마술사

기독교협회의 청탁에 의한 소책자 하나를 쓰기 위해서 구약을 내 나름대로 다시 훑어 읽을 기회를 가졌다. 구약이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안내서 몇 권에 의존하면서 읽어 갔다. 나의 관심은 예언자들에게 있었다. 읽어가면서 예언자들에 대해서 새삼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다.

이스라엘 역사는 객관적으로만 봐서도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. 지구 한 구석에 자리한 한 민족으로서 벌써 2500년 전에 국권을 완전히 잃었으면서도 세계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앞으로 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.

무엇이 저들의 저력인가라고 묻는다면 역시 저들의 역사관이다. 그런데 이 역사관은 바로 예언자들의 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. 구약에서 보는 대로 저들의 전승자료는 다른 민족의 건국설화와 민속전설과 본질상 다른 것이 없다. 미개한 상태에서 얻은 경험에서 축적된 전승, 밖에서 유인된 설화 등 온갖 것이 난맥상을 이루어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.

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결정체로서 인류의 재산이 된 것은 예언자들에 의한 것이다. 저들의 역사안목이 저들의 과거의 전승을 꿰뚫는 힘줄이 되어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었다. 저들의 눈이 과거를 비추

면 죽어 문혔던 것이 살아나서 현재의 힘으로 되고 미래를 향하면 현재에 앞당기는 힘이 됐다. 그래서 나는 저들을 역사에의 힘줄을 만드는 마술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이스라엘의 전승자료는 단속적인 것이다. 그러나 예언자의 눈에 의해서 한 유기체가 됐다. 그러므로써 그들의 죽은 과거는 미래에로 향하게 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었다.

나는 이스라엘 사를 읽다가 한국민족사에 마음이 기울어졌다. 이 민족의 역사도 수난의 연속이다. 그 점에서 이스라엘과 비슷하다. 그 수난의 원인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라는 점도 비슷하다. 그러나 이 민족은 세계사적으로 공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. 왜? 타고 날 때부터 우열이 결정됐나? 그런 것 같지는 않다. 과거의 자취가 추했는가?

그렇지도 않다. 문제는 자기 역사를 꿰뚫는 핏줄을 만드는 예언자들이 없는 데 있지 않을까! 만일 그런 예언자 같은 열이 있었다라면 이 민족의 낡은 삶의 자취, 민속전설, 설화 등에도 산재한 수천 년 된 해골들의 뼈와 뼈가 갑자기 제자리를 찾고 힘줄이 생겨서 기동할 수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. 우리의 고사가 겨우 김부식 같은 눈이 없는 수공사의 손에 이루어졌다. 거기는 핏줄이 없다.

그러나 예언자란 있었어도 그 민족이 그 말을 듣고 그 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홀로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다. 예언자는 그 민족과 더불어 설 수 있다. 한국사에도 예언자들이 있었는지 모른다. 그러나 이 민족이 귀 기울이지 않아서 땅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. 한국사 연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다. 소위 정사에는 흥미 없다. 소리 소리치다가 그 소리가 민족의 귀에 미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외로움을 안고 그대로 죽어간 숨은 인간들의 모습을 발굴한 것을 보고 싶다. 역사 자체는 열을 갖고 있지 않다.

아니! 역사의 열은 예언자와 같은 인간이다. 이 열이 과거 현재

미래를 꿰뚫어서 한 생동하는 유기체로 만든다. 나는 우리 역사에도 예언자는 꼭 있었을 것만 같다. 그래서 예언자를 찾기 운동이 벌어졌으면 하는 염원이 생겼다. 예언자 찾는 눈은 예언자의 눈을 가진 자만이 가진 것이다. 그게 누구들인가?

(1970, 8, 『현존』)